

吉林省 和龍市 渤海 北大古墳群 考察

A look into of Beida Ancient Tombs Balhae
in Helong City, Jilin Province

최 정 범
계명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II. 고분의 구조

III. 매장프로세스

IV. 출토 유물과 연대

V. 북대고분군의 역사적 의미

VI. 맺음말

국문 요약

吉林省 和龍市 八家子鎮에 위치한 북대고분군은 서고성에서 남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해란강의 북안에 조성되었다. 묘제는 횡혈(구)식의 석실과 석관이 대부분이며, 일부 위담봉토분구가 확인된다.

피장자는 목관을 사용하거나 직장의 형태로 안치하며, 관대가 확인되나 대체로 바닥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개별 고분 내에서 오랜 기간 추가장이 이루어지며 복수의 피장자가 다양한 형태로 배장되어 주목된다. 유물의 출토 사례는 박장 등의 연유로 풍부한 편은 아니나, 중국도자·동경·당식 대장식구 등의 교차연대를 통해 중심연대는 8세기 전-중반경으로 비정된다.

북대고분군에 조성된 고분은 대부분 석축 묘제이며 현재까지 조사된 발해고분군 중에서 외래유물의 출토 사례가 암도적이다. 특히 서고성을 중심으로 용두산고분군과 대칭된 입지에 조성된 점 등으로 미루어 북대고분군의 조성 세력은 중경현덕부와 밀접한 관인의 묘역으로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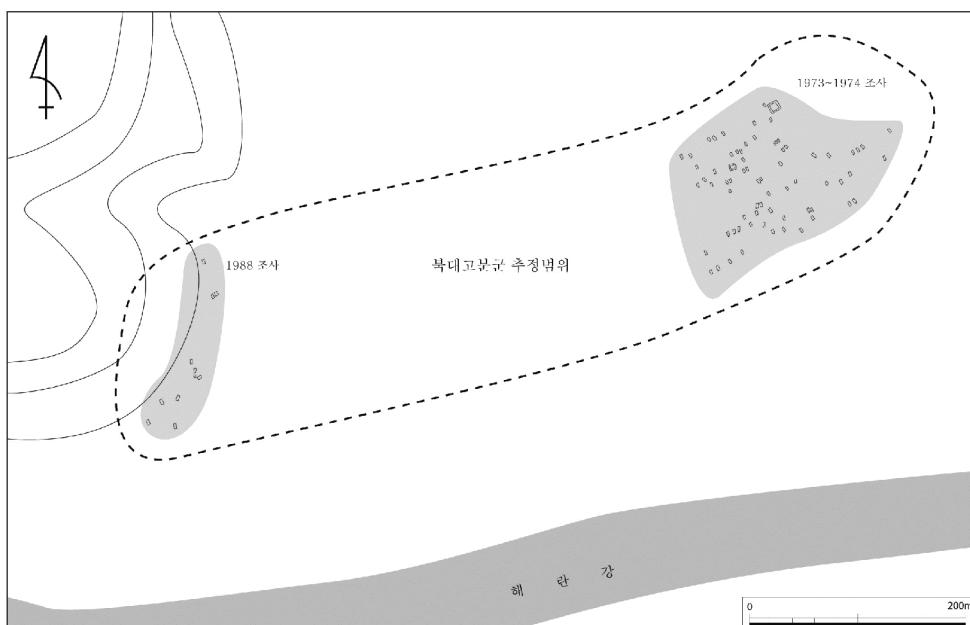
주제어 :발해, 북대고분군, 추가장, 중경현덕부, 관인

I . 머리말

吉林省 和龍市 八家子鎮에 위치한 북대고분군은 남쪽으로 해란강이 인접하며 [도면 1]에서 보듯이 동-서 약 800m, 남-북 약 300m 범위에 400여 기 이상의 고분이 분포(엄장록 · 박룡연 1993: 54~55)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민가와 농지개발 등의 연유로 고분군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북대고분군의 북동쪽으로 5km정도 떨어져 서고성, 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하남둔고분이 위치한다.

최초의 북대고분군 조사는 1941년에 이루어졌는데, 다수의 석실봉토분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다케시타[竹下]에 의해 1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齋藤優 1978: 73~74)고 한다. 또한 당시 고분군의 동북쪽으로 2~3기의 봉토가 있는 무덤이 있었는데, 그 아래는 자연석으로 직경 10m의 방형 기단을 쌓고 윗면은 둥근 형태로 보고하였다.

이후 1960년에는 延邊朝鮮族自治州 文物普查隊에 의해 1기의 고분이 발굴되었고, 1963년에는 朝中聯合考古隊에 의해 1기의 고분이 추가로 조사되는 등 간헐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 延邊博物館과 和龍縣文化館의 공동조



[도면 1] 북대고분군의 추정범위와 발굴조사 구역

사를 통해 60여 기의 고분이 발굴되었다. 이후 1973년 延邊博物館에 의해 2기, 1988년 延邊博物館과 和龍縣文物管理所의 공동조사를 통해 11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鄭永振·嚴長錄 2000: 160~162).

이처럼 북대고분군은 현재까지 조사된 밸해고분군 중에서 왕릉급 고분군을 제외하면 비교적 다수의 고분이 충실히 조사된 고분군¹⁾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중경현덕부의 치소로 비정되는 서고성 인근에 조성되어서 밸해 중경 지역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에 해당한다. 그래서인지 일찍이 이에 대한 정밀한 정리와 연구가 발표되었다. 북대고분군의 조사 현황과 고분의 유형분류 및 특성, 매장방식과 습속, 피장자의 신분 등에 대한 연구(엄장록·박룡연 1993)가 그것이다. 이는 북대고분군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하에서 재차 북대고분군에 주목하여 고찰을 진행하는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로 보건대 다인장을 추가장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외래유물을 통한 교차 편년이 가능한 점 등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밸해고분 연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밸해 고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인장(송기호 1984)을 시작으로 밸해고분군의 현황과 분포, 석실분을 통한 밸해의 북방 경영 논증(김진광 2008)과 육정산고분군을 통한 밸해의 건국집단 검토(송기호 2010), 밸해고분의 묘제와 그 분류(박규진 2011), 외관조형물(구난희 2019), 밸해 고분군의 지역성을 통한 복속지 지배방식(김하늘 2020)과 왕릉 비정(崔正凡 2019) 등의 개괄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육정산(고성욱 2018), 홍준어장(김진광 2012; 권오영 2021), 체르냐치노5(정석배 2007) 고분군 등 정식 보고서가 밸간된 고분군을 제외하면 개별 고분군의 입지와 성격 등에 대한 정치한 연구는 용두산고분군(송기호 2010; 김진광 2018)과 산저자²⁾고분군(정원철 2012) 등을 제외한다면 상대적으로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판

1) 흑룡강성 영안 홍준어장 고분군의 323기, 러시아 연해주 옥차브리스키지구 체르냐치노5 고분군의 188기, 길림성 양돈 대해맹 성층유적(고분군)의 70기 다음으로 많은 수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2) 한국 학계에는 간체자가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산저자(山咀子)'로 소개되었는데, 중국 보고문의 영문초록을 살피면 'ShanZuiZi'로 표기되어 있다. 저(씹다, 咂)는 jū로 발음되는데, zuī로 발음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쥐(부리, 嘴)의 속자로서 '咀'로 표기하되 zuī로 발음된다. 따라서 해당 지명은 '산취자(山咀子)'로 명명하는 것이 정확하다.

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대고분군이 위치한 길림성 화룡시 일대는 742~756년간 발해의 수도로 기능하였으며, 중경현덕부의 치소로 비정되는 서고성과 인접하여서 5경의 문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유적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현재 까지 보고(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和龍縣文化館 1982; 延邊博物館·和龍縣文物管理所 1994)된 북대고분군 내 개별 고분의 구조와 매장프로세스, 출토 유물을 통해 고분군의 조성연대를 파악한 다음 북대고분군의 역사적 의미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현재 까지 조사되어 보고가 이루어진 북대고분군의 개별 고분 현황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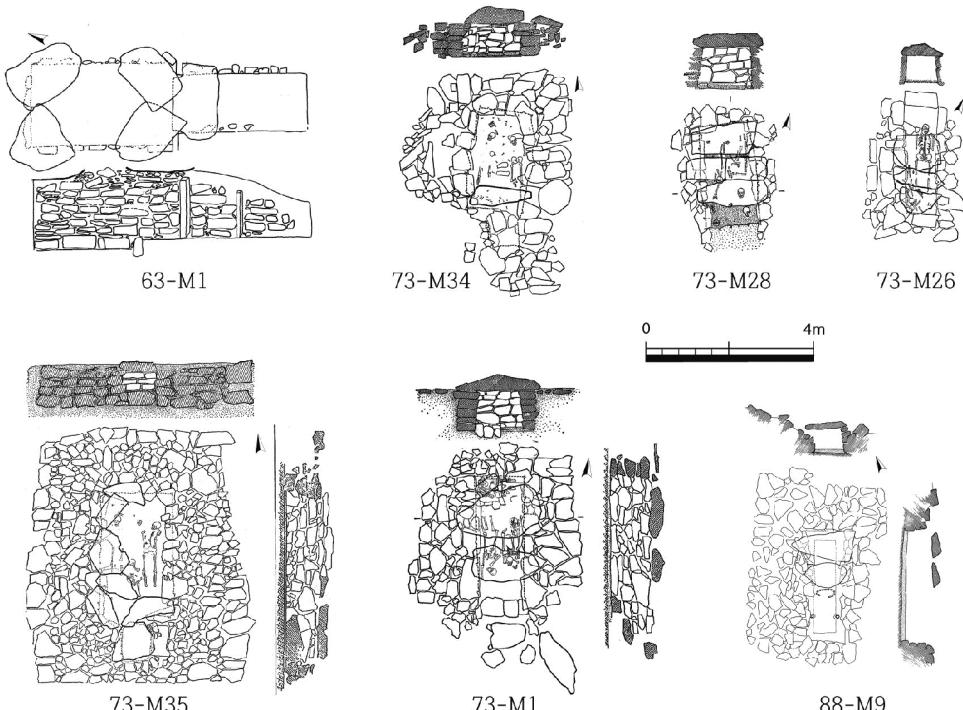
[표 1] 북대고분군 유구 속성

호수	형식	묘실		묘도			피장자			비고
		길이	너비	위치	길이	너비	최소개체	유형	목관	
41-M1	횡혈	320	260	中						
63-M1	횡혈	350	200	中	320	140				중앙 1
73-M1	횡구	290	110				9	C		중앙 2
73-M2	횡구	270	95				2	A	○	중앙 3
73-M3	횡구	235	105				1	A	○	중앙 4
73-M4	횡구	287	100				1	A	○	중앙 5
73-M5	횡구	230	84							중앙 6
73-M6	횡구	260	110							중앙 7
73-M7	횡혈	250	105	東	60	60	1			중앙 8
73-M8	횡구	245	95				2	C		중앙 40
73-M9	횡구	260	85							중앙 10
73-M10	횡구	220	80				2			중앙 11
73-M11	석곽	249	85				1	A		중앙 33
73-M12	횡구	228	104							중앙 13
73-M13	횡구	184								중앙 14
73-M14	횡구	257	88				1			중앙 15
73-M15	횡구	250	86				2			중앙 16
73-M16	횡구	266	70				1			중앙 17
73-M17	횡구	260	100				1		○	중앙 18
73-M18	토광	213	133							중앙 19
73-M19	횡혈	270	145	中	40	102	7	B		중앙 20
73-M20	횡구	290	120				2	A	○	중앙 21
73-M21	횡구	240	91				1			중앙 22
73-M22	횡구	220	100				2			중앙 23
73-M23	횡구	265	95				2	C		중앙 24
73-M24	횡구	230	100							중앙 25
73-M25	횡혈	230	100	中	90	40	1			중앙 26
73-M26	횡구	250	75				3	C		중앙 27

호수	형식	묘실		묘도			피장자			비고
		길이	너비	위치	길이	너비	최소개체	유형	목관	
73-M27	횡구	250	76							중앙 28
73-M28	횡구	240	130				3	C		중앙 29
73-M29	횡혈	245	155	中	40	75	3	C		중앙 30
73-M30	횡구	260	80				1			중앙 31
73-M31	횡구	245	90				2	C		중앙 32
73-M32	횡구	255	100				1			중앙 33
73-M33	횡구	250	100				1			중앙 34
73-M34	횡혈	230	149	東	85	70	2	A	○	중앙 35
73-M35	횡혈	290	170	中	100	70	4	C	○	중앙 36
73-M36	횡구	210	78				1	B		중앙 12
73-M37	횡혈	250	130	中	60	80	6	B		중앙 38
73-M38	횡혈	290	170	中	40	70	12	B		중앙 39
73-M39	횡구	280	110				2	C		중앙 9
73-M40	횡구	230	90				1			중앙 41
73-M41	횡구	270	100				1			중앙 42
73-M42	횡구	290	90				2	C		중앙 43
73-M43	횡구	285	110							중앙 44
73-M44	횡구	230	80				1			중앙 45
73-M45	횡혈	230	130	中	40	75	5			중앙 46
73-M46	횡구	255	145				2			중앙 47
73-M47	횡구	200	100				4	C		중앙 48
73-M48	횡혈	240	140	中	50	95	1	B		중앙 49
73-M49	횡구	220	80				2		○	중앙 50
73-M50	횡혈	260	125	中	40	85	2	A	○	중앙 51
73-M51	횡혈	245	135	中	60	97	2			중앙 52
73-M52	횡혈	230	136	中	50	85	3	C		중앙 53
73-M53	횡구	230	130							중앙 54
73-M54	횡혈	240	130	中	50	50	6	B	○	중앙 55
74-M1	횡구						2	C?		
74-M2	횡혈			中			2	A?		
88-M1	?	(195)	95							
88-M2	횡구	240	80				1		○	중앙 56
88-M3	?									
88-M4	?	(185)								
88-M5	석곽	(220)	100							
88-M6	석곽	235	80				1			중앙 57
88-M7	석곽	275	230				2	C	○	중앙 58
88-M8	석곽	230	65				1			
88-M9	석곽	260	90				1			중앙 60
88-M10	석곽	220	110				1		○	중앙 61
88-M11	석곽	217	80				1		○	중앙 62

Ⅱ. 고분의 구조

북대고분군에서 조사된 고분은 석개토광묘인 73-M18호³⁾를 제외하면 대부분 횡혈(구)식과 석곽의 석축고분에 해당한다. 63-M1호는 묘도와 문주석을 갖춘 삼각고 임천장의 횡혈식석실로 현재까지 북대고분군 내에서 1기만 확인⁴⁾되었다.



[도면 2] 북대고분군 내 고분의 구조

그 밖의 횡혈식석실은 이보다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문주석과 같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북대고분군에서 확인되는 횡혈식석실묘의 묘도는 일부 동쪽에 치우쳐 조성되었으나 대체로 중앙에 위치하는 사례가 우세하다. 한편 73-M34·35호 등

3) 각종 보고문에서 해당 유구의 도면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녕 대성자 3호와 같은 구조라 하였으므로 석개토 광묘로 분류할 수 있다.

4) 보고문에 따르면 1941년 다케시타(竹下)가 조사한 석실의 형태가 이와 유사하다고 하나 도면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1973년 발굴 당시 63-M1호와 같은 고분이 여러 기가 존재했는데,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탄약고로 사용되었다는 전언(엄장록·박용연 1993: 57)을 참고한다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횡혈식석실이 다수 존재했을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는 있다.

은 평면형태가 횡혈식석실이기는 하나 묘도의 길이가 짧고 묘실과 함께 높이가 1m 이내로 낮아 묘도를 통해 추가장이 불가능한 구조의 C형식 석실분으로 분류(박규진 2011)되기도 한다. 이를 따른다면 횡혈식석실의 평면에서 묘도가 훈적기관으로 잔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횡혈식의 73-M35, 횡구식의 73-M1, 수혈식석곽의 88-M9호 등의 사례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매장주체부의 주변으로 평면 방형의 형태로 돌을 둘러 묘역을 조성⁵⁾하였다. 아울러 보고문에 제시된 도면으로 보아 매장주체부가 지하식으로 짐작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고분들의 형식은 위담봉토분구(강현숙 외 2021: 201~203)로 분류⁶⁾할 수 있다. 이는 길림성 돈화 육정산고분군 I-14·15·17·20호 등과 비교된다. 이상의 고분들은 북대고분군 내에서 규모가 비교적 큰 편에 해당한다.

그 밖에 73-M34호 등의 횡혈식석실, 73-M28호 등의 횡구식 석실, 73-M26호 등의 석곽묘 등이 다수 분포한다. 개별 고분 내 시설과 관련하여 63-M1호의 문주석, 73-M1호 내부의 인골부장대(臺)를 제외하면 뚜렷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신을 안치하는 시설로 73-M2·34호 등의 사례와 같이 바닥에 할석을 깔고 그 위에 목판이나 시신을 안치하는 관대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한편 방형봉토분으로 분류(엄장록·박룡연 1993: 62~63)된 2기의 유구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좀 더 보기로 한다. 해당 유구는 1973년 당시 2기가 조사되었는데 파괴가 심해 유구배치도에만 대략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엄장록의 연구에 서술⁷⁾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유구들을 미완성된 고분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조사내용을 재차 검토해 보면 애초에 매장주체부가 조성되지 않았던 것으

5)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북대고분군의 동북쪽으로 2~3기의 봉토가 있는 무덤이 있었으며 그 아래는 자연석으로 직경 10m의 방형 기단을 쌓고 윗면은 둥근 형태였다는 기록(齋藤優 1978: 73~74)을 염두에 둔다면 기단봉토분의 존재 가능성도 고려할만하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유실되어 사실 유무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6) 현재까지의 조사성과에 견주어 보건대 위담봉토분구는 돈화 육정산고분군과 심양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 영안 대주둔 1호, 동녕 대성자 1호 등을 꼽을 수 있다.

7) …동서와 남북의 삼자선으로 네등분하고 서남쪽의 1/4부분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1m 정도의 깊이에서 7~8cm 두께의 부드러운 모래층이 발견되었다. 그 아래는 검은색 진흙층이었다. 이 2개 층은 생토층이었으며 그 위의 돌들은 불규칙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이 부분의 돌무지 상부에서 타서 그을린 나무껍질과 붉은 벽돌조각이 확인되었고 흙들도 탄 흔적을 나타냈다. 탐색한 끝에 이 돌무지는 무덤이 아닌데 무엇으로 썼는지 아직 똑똑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하였다(엄장록·박룡연 1993: 62~63).

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특히 구 지표면의 상부에 기단을 조성하였으며 그에서 목탄과 소토가 발견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유구는 육정산 고분군과 홍준어장 고분군에서도 조사된 바 있으므로, 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봄이 낫지 않나 싶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후술할 북대고분군 내 추가장 B·C 유형에서 확인되는 집골인골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2차장이 이루어지기 전의 육탈을 위한 화장으로서의 번소 시설일 가능성(강현숙 외 2021: 229)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대고분군 출토 인골에 대한 소견이 발표되지는 않아서 주저되는 측면이 있으나, 인골에서 화장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면殯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의 선에서 그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전된 필요가 있다는 점만을 덧붙여 둔다.

III. 매장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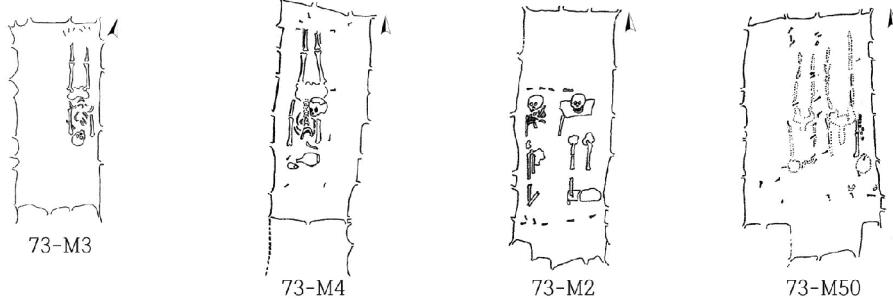
북대고분군의 개별 고분에서 葬具와 관련된 유물로 관정과 판고리가 다수 출토되었다. 노출 정황은 73-M4·34·50·88-M2·7호 등의 사례에서처럼 목관에 결구된 상태를 유지한 상태였으며, 73-M54·88-M9호에서는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북대고분군의 장구는 관정으로 결구하고 판고리가 부착된 목관을 사용하여 시신을 안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정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상존하므로 직장의 형태로 매장되는 사례도 공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장자는 매장주체부 내 생토 혹은 정지면 상부에 바로 안치하기도 하나, 73-M11호 등의 사례에서처럼 할석을 사용하여 두침을 마련한 다음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하기도 하였다.

북대고분군 내에서는 다수의 인골이 확인되어 매장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해 多人葬 연구에서 북대고분군의 사례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북대고분군 내 개별 고분에는 1명에서 많게는 12명의 피장자가 매장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그에 앞서 발해 고분연구에서 언급되는 ‘다인장’을 먼저 살펴 필요가 있다.

기왕의 다인장 분류에 따르면 1명의 피장자가 확인될 경우 단인장, 2명 이상의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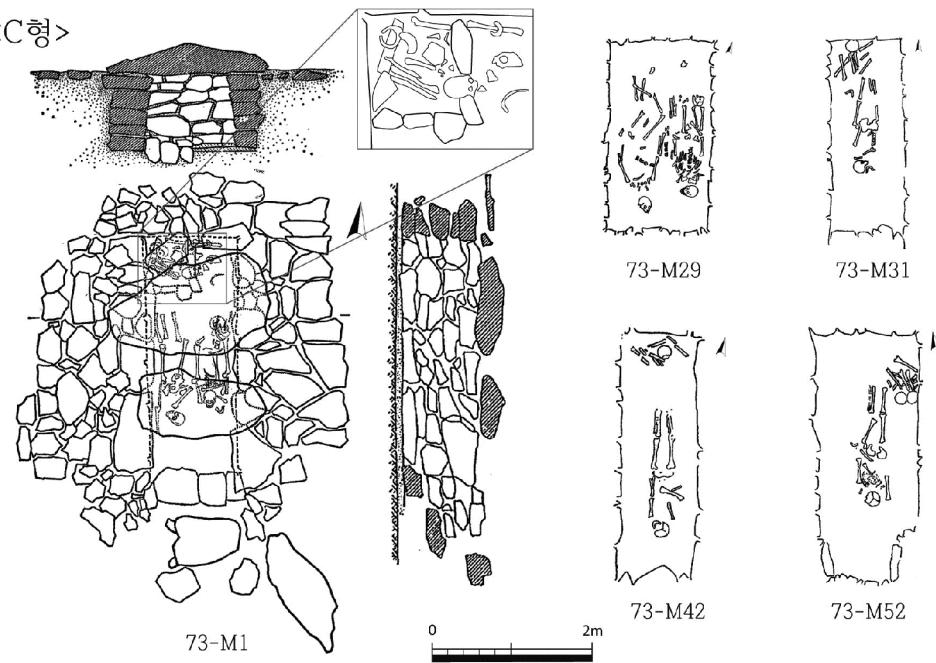
<A형>



<B형>



<C형>



[도면 3] 북대고분군 내 추가장 유형 분류

장자가 확인되면 다인장으로 일컫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인장은 피장자의 매장 상태에 따라 인골 전체가 평진 상태로 발견되는 1차장과 인골이 한곳에 몰려 있는 2차장으로 나뉜다(송기호 1984: 62). 그리고 매장 주체자의 구성에 따라 2인1차, 2인2차, 단인1차+다인2차, 2인1차+다인2차, 다인N차 등으로 구별되기도 하나 어떠한 형태로 매납되었는가에 관계없이 합장묘를 제외한 3개체 이상의 피장자가 매납된 형태(김진광 2020: 135)를 지칭한다.

사실 복수의 인골이 다양한 형태로 매장되는 현상은 인골의 잔존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에 드러난 가시적인 착시현상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단일 석실에 복수의 피장자가 매장되며 집골과 재정리가 진행되는 현상은 중고기 신라 석실묘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호북성 일대에서도 흔히 확인되는 사례이므로, 밭해고분에 드러나는 특수한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기왕에 다인장이라는 용어와 그 유형을 지칭하는 단인1차, 2인1차 등의 용어는 가시적인 현상을 세분하여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데,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결국 복수의 인골이 확인되는 양상은 횡혈계 묘제에 드러나는 추가장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대고분군에서 확인되는 피장자의 안치 방법은 크게 피장자를 직접 안치하거나 목판 등의 장구를 사용하여 안치하는 1차장(A형), 육탈된 뼈를 추려 매장하는 2차장(B형), 두 장법이 함께 확인되는 다인합장(C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반론적인 추가장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기로 한다.

A형은 피장자의 매장 자세가 해부학적 연속성이 유지된 채 위치 이동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서, 신전장(伸展葬) 혹은 양신직지(仰身直肢)의 형태로 매장되었다는 표현과 동일하다. 이는 기왕에 단인장, 1차장과 상응한다. 73-M3 · 11 · 20 · 34호 등과 같이 직장의 형태로 매장되기도 하나, 73-M2 · 4 · 35 · 50호에서 인골 주변으로 관정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목판에 안치되어 매장되기도 한다.

B형은 어떠한 형태로든 피장자의 인골이 집골(集骨)되어 정리, 재배치된 상태이다. 상완골(上腕骨:Hu), 요골(橈骨:Ra), 척골(尺骨:Ul), 대퇴골(大腿骨:Fe), 경골(脛骨:Ti), 비골(腓骨:Fi) 등의 장골이 정리되거나, 그 위로 두개골(頭蓋骨:Sk)이 엎혀진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밖에 장골이 유구 내 벽석 하단에 접하여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유구 내에서 산재된 형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단인/2인/다인)2차장과 상응하며 73-M19 · 37 · 38 · 54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C형은 A·B유형이 혼합되는 양상에 해당하며, 기왕의 혼합장(단인1차+단인/2인/다인2차)에 상응한다. 최종 피장자는 해부학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대 피장자는 유구 내 한켠으로 치우친 상태로 발견된다. 73-M8·23·26·28·29·31·35·39·42·47·52·88-M7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73-M1호의 경우 석실 내 북서모서리에 할석으로 길이 70cm 너비 40cm, 높이 30cm의 臺를 조성한 다음 그 위에 인골이 집골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인골이 출토되지 않았다면 유물부장대로 비추어질 수 있겠으나, 이 고분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채 집골된 유해가 노출되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애초에 집골된 유해를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조성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73-M38·52호에서 유구 내 한켠에 정리된 인골의 노출 정황으로 보아 집골된 인골을 포함 등에 담아 별도로 안치했을 가능성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북대고분군 내에서 추가장이 확인된 유구는 전체 28기로 빌굴조사가 이루어진 고분의 40.6%에 달한다. 인골의 잔존 상태가 불량하거나 부식으로 인해 토양화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단위 고분 내 피장자의 추가장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박규진은 73-M34·35호 등의 C형식 석실분은 좁고 낮은 묘도를 통한 횡방향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추가장이 불가능한 구조로 파악하고 추가 합장묘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박규진 2011: 168, 185)으로 보았다. 그러나 73-M1·26·34호 등에서 노출된 판정의 배열 양상과 묘도의 폭을 염두에 둔다면 소수의 인원이 동원되어 목관을 밀어넣는 방법으로 추가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고려 할만하다.⁸⁾ 다만 이는 작업의 효율성이 매우 낮으므로 결국은 일부 개석을 드러낸 다음 추가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봄이 낫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횡혈식의 묘도는 흔적기관으로 잔존하거나 횡구식의 경우 고분의 조성을 위한 작업로의 기능(강승규 2019: 177)에서 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만하다. 특히 상하 수직의 추가장 사례는 안도 동청 9호, 도문 양수과원 7호, 동녕 대성자 1호 등의 발해고분에서 확인되므로 그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 영안 홍준어장 고분군의 사례에서 연도가 없는 소형 묘에서 2인 이상이 매장된 사례, 연도 바닥이 현실 바닥보다 높고 삽령되어 연도가 없는 구조로 오인되는 사례 등은 연도와 현문은 없지만 추가장이 가능한 횡구식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홍준어장 고분군 내 소형묘에서 이루어진 추가장은 횡구부를 통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권오영 2021: 679~680) 이는 북대고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예컨대 석곽으로 조성된 88-M7호의 사례에서처럼 목관에 안치된 피장자의 서편에 또 다른 피장자의 인골이 집골된 현상은 수직의 접근⁹⁾이 아니면 불가능한 결과일 터이다. 아울러 73-M19 · 38 · 54호 등의 사례에서처럼 선행 피장자의 집골을 염두에 둔다면 수직적 접근을 통한 추가장의 방식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IV. 출토 유물과 연대

북대고분군에서 유물의 출토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다. 이는 도굴 등의 연유도 있겠으나, 애초에 박장으로 인해 부장유물이 번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이러한 연유로 개별 고분의 연대 파악에 큰 어려움이 상존하나, 일부 고분에서 역연대 파악에 유효한 외래유물이 출토(崔正凡 2022b)되어서 대략의 연대를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북대고분군에서 출토된 외래유물을 통해 고분군의 연대 파악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중국도자는 73-M28호에서 兩耳罐 1점과 88-M7호에서 絞胎碗 1점이 출토되었으며, 모두 河南省 黃冶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73-M28호에서 출토된 兩耳罐은 홍갈색의 태토로 제작되었으며 동 상부에 감동색의 유약이 두텁게 시유되어 있다. 평저이며 동최대경은 동 중상위에 위치한다. 견부에는 고리형의 파수 2개가 접합되었으며 경부는 짧고 구순은 둥글고 두텁게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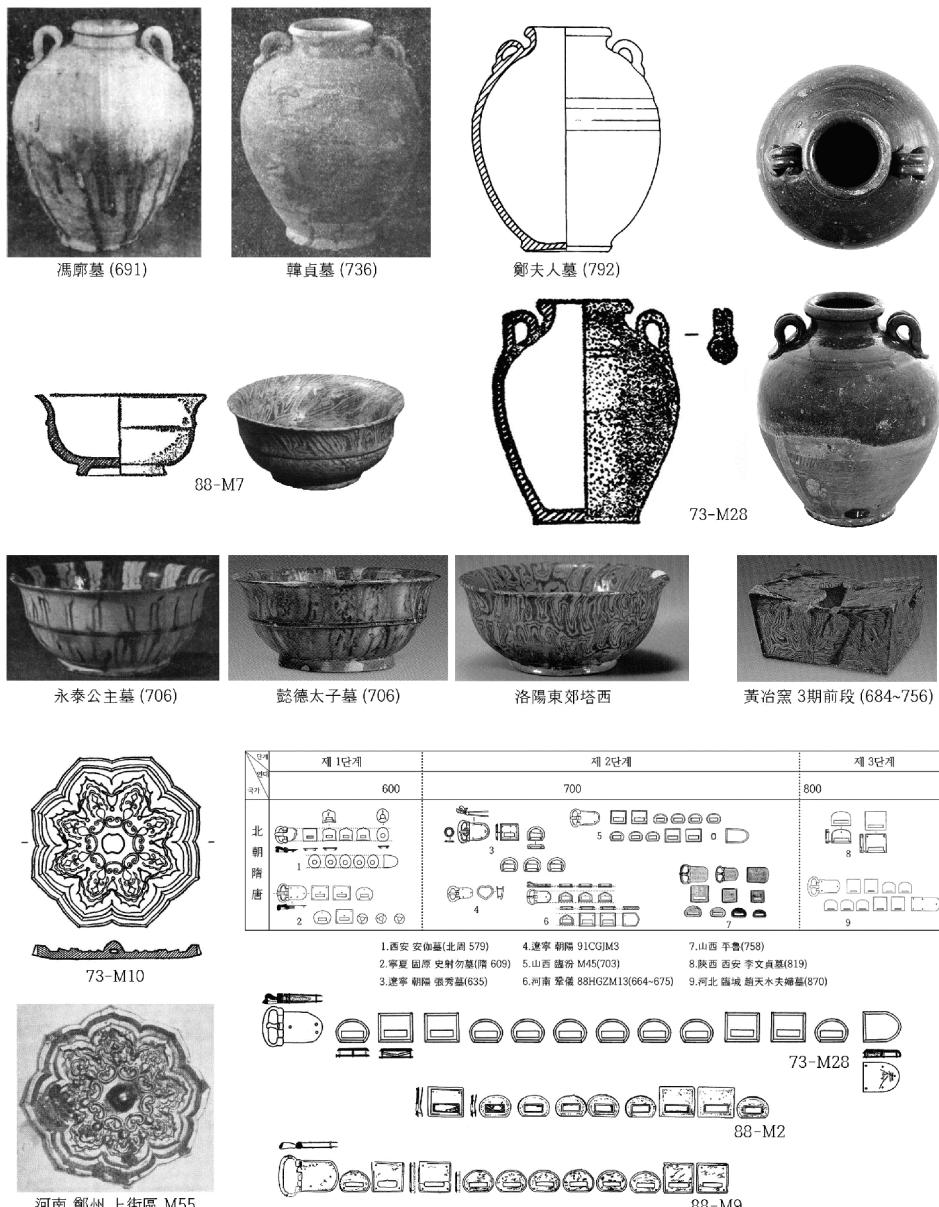
이는 盛唐时期 고분에서 다수 출토되는 자료들과 비교된다. 감동색의 유약과 홍갈색의 태토라는 점에서 화북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黃冶窯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로 미루어 武則天 天授 2年(691)에 사망한 馮廓(長治市博物館 1989) · 開元24年(736)에 사망한 韓貞墓(朝陽地區博物館 1973)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로 미루어 8세기 전-중반 이후에 부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88-M7호에서 출토된 絞胎碗은 황색 · 백색의 태토로 제작되었다. 구순은 짧게 외반하며 동체 중위에 돌선이 부가되었다. 이는 7세기 후반 이후 널리 사용된 기형이

9) 물론 외부에서 2차장된 인골이 집골되어 목관에 안치된 피장자와 동시에 매장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집골 인골이 정리되지 않은 정황을 유념한다면 그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기된다.

며, 중국에서는 청·검·동색 등의 유약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제작된다. 기형은 永泰公主 李仙慧(706 死) · 李貞(718 死)墓 출토품 등과 유사하다.

다만 황색·백색의 태토로 제작된 絞胎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絞胎碗은 洛陽東郊塔西, 西安王家墳村 90호(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56) 등에서 출토되었는



[도면 4] 북대고분군 출토 교차연대와 비교자료

데, 전체적인 기형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684~756년경으로 비정되는 鞏儀市 黃治窯 3期前段 층에서는 이와 유사한 교태도자들이 출토된 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88-M7호 출토 紹胎碗은 8세기 전반경으로 비정할 수 있다.

동경은 73-M10호에서 출토되었으며 은회색을 띠는 점으로 보아 은박평탈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은 8엽의 능화형이며 배면에 보상화문이 표현되었다. 이는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아 河南省 鄭州 上街區 M55호 출토품과 가장 근사하다. 이 고분에서는 묘지명이 공반되었으나, 문자의 마모가 심해 판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기·도용 등 출토 유물의 교차 연대를 통해 玄宗 天寶年間(742~755) 이전의 盛唐期로 비정되었다(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60: 43). 따라서 73-M10호에서 출토된 동경은 8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점으로 비정할 수 있다.

당식 대장식구는 73-M10 · 14 · 20 · 22 · 23 · 26 · 28 · 29 · 34 · 35 · 37 · 46 · 50 · 51 · 88-M2 · 9호에서 출토되었다. 이 사례들이 전부 보고되지 않아서 북대고분군 출토 당식 대장식구의 양상 파악에 한계가 따르나, 일부 보고된 자료들을 통해 그 연대를 가늠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당식 대장식구는 그것이 출토된 중국 내 기년 자료로 보건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구의 교판과 대단장식의 세장화·과판 단부 둔각에서 직각으로의 변화·수공의 폭이 작아지는 등의 형식 변화가 뚜렷하다. 이는 唐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확인(崔正凡 2022a: 37~42)되므로, 형태상으로 대장식구의 자체적인 상대 편년을 논하기 어렵다는 견해(山本孝文 2006: 403)를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역연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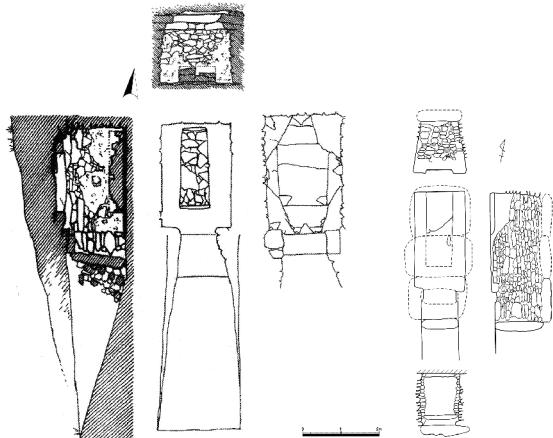
도면과 사진의 보고가 이루어진 73-M28 · 88-M2 · 9호 출토 대장식구를 살피면, 과판의 단부는 둔각으로 조정되었으나 수공의 폭이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띤다. 이 대장식구들은 唐 肅宗 乾元 元年(758)의 기년을 갖는 山西省 平魯縣 일팔유물(山西省考古研究所·陶正剛 1981)과 근사하므로 8세기 중엽경으로 비정할 수 있다. 73-M28호는 상대적으로 단부의 둔각 조정이 뚜렷하며 703년의 기년을 갖는 山西省 臨汾 M45호 출토품에 근사하다. 따라서 73-M28호 출토 대장식구는 8세기 전-중반으로 비정된다. 한편 88-M9호 출토품은 73-M28호 출토품에 비해 과판 단부의 둔각조정이 뚜렷하지 않고 과판 폭/수공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88-M9호 출토 대장식구는 잠정 8세기 중엽 이후로 비정하되, 그보다 후행할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V. 북대고분군의 역사적 의미

현재까지 조사되어 보고된 북대고분군의 개별 묘제는 석축으로 조성된 횡혈(구)식의 석실묘가 압도적이다. 특히 매장주체부가 횡혈(구)식 석실, 석곽으로 조성되었다라도 73-M1 · 35, 88-M9호의 상부는 방형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육정산고분군의 일부 묘제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63-M1호는 중앙연도에 문주석이 갖추어진 횡혈식 석실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로는 유일하나, 각주3)에서 언급하였듯 각종 보고문에 이와 유사한 석실의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므로 63-M1호와 같은 규모와 구조의 석실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할 만하다. 이 고분은 화룡 용두산고분군 용호구역 1호, 함경북도 화대군 금성리 벽화고분과 비교된다. 관대의 존재와 평천장이라는 데서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묘도의 설치와 석실의 형태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이 관찰되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고분이 왕실고분군에 해당하는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에서도 다수 확인되는 점에 미루어 고위층의 석실 구조로 판단하고, 발해의 주요 거점지역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해 통치하였거나 중앙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해석(김하늘 2020: 98)하기도 한다. 북대고분군이 서고성에 인접하다는 지리적 특수성을 유념한다면 중앙 묘도의 횡혈식석실을 조성할 수 있었던 피장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발해의 중앙행정체계, 즉 서고성과 유관한 집단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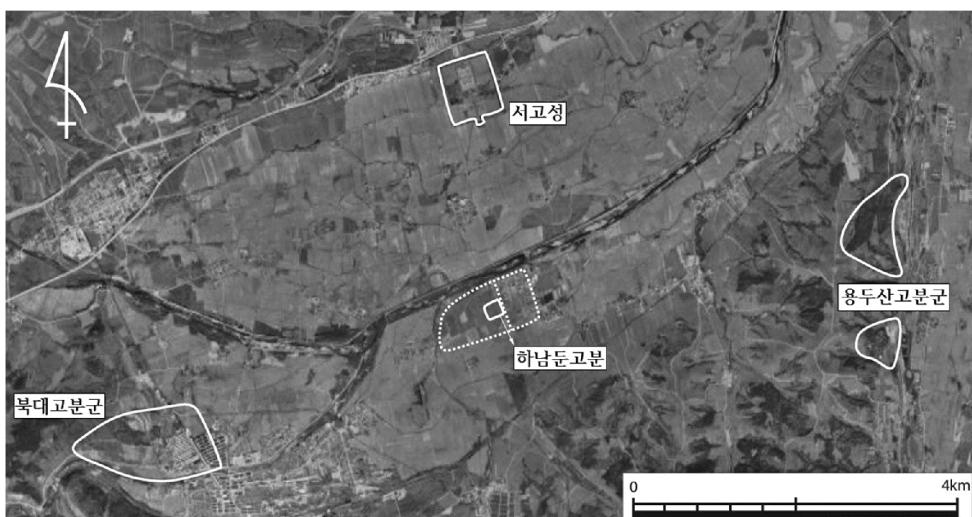
한편 고분군 내 출토유물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발해고분군 중 왕릉급 고분군에 해당하는 육정산고분군에서 중국도자 1점, 용두산고분군에서 동경 1점이 출토된 사례를 제외하면 외래유물의 출토 사례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73-M4호 출토 벼루와 73-M20호 출토 유개삼족발 등은 중국 화북 및 요녕성 조양 일대의 고분군과 생산유적에서 출토되는 기형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짐작된



[도면 5] 길림성 화룡 용두산고분군 용호구역 1호(左),
함경북도 화대 금성리벽화묘(右)

다. 이처럼 북대고분군에서 외래 유물과 모방 요소의 출토 사례가 다수 존재함은 고분군 조성 집단이 외래문화의 수용과 접촉이 빈번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특히 당식 대장식구가 다수 출토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밸해 고분군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의 11%가 북대고분군에서 출토되었는데, 이는 영안 홍준어장(39%), 돈화 육정산(16%) 다음으로 많은 점유율에 해당한다. 북대고분군 출토 당식 대장식구는 청동 재질에 주조로 제작되었으며 일부 윗침이 부가되었다. 밸해 역시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 당식 대장식구가 수용·확산되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를 소유한 북대고분군의 피장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밸해의 행정체제에 속한 관인일 가능성을 키워준다.



[도면 6] 북대고분군과 주변 유적의 입지(최정범 2021: 29)

이상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북대고분군의 입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면 6]에서 보듯이 서고성과 문왕릉으로 비정되는 하남둔고분(崔正凡 2021)의 남-북 축을 중심으로 정효공주·효의황후·순목황후와 함께 성왕 대화여·강왕 대승린·간왕 대명충 등의 능이 비정(崔正凡 2019)되는 왕릉급고분군인 용두산고분군¹⁰⁾은 동쪽에 위치한다. 북대고분군은 서쪽에 위치하는데, 두 고분군은 하남둔고분에서 이격거리에

10) 왕릉급 고분이 밀집한 용해구역의 고분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형의 고분이 조성된 용호·석국·용해소학교 구역은 왕릉급 고분에 인접한 배장묘역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는 석국구역 1호분에서 삼체도용과 교태도침이 출토됨을 염두에 두고 보아도 그러하다.

대차가 없다. 이를 환치하면 서고성과 하남둔고분을 중심에 두고 좌우로 용두산고분군과 북대고분군이 의도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북대고분군에서 다양한 외래유물과 함께 관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당식 대장식구가 다수 부장되었음을 유념한다면 북대고분군은 왕릉구역과는 대비되는 집단,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서고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경 일대 관인의 고분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경 일대가 백산부(말갈)의 거주지였기에 고구려적 요소가 강할 뿐만 아니라 발해의 특산물로 소개되는 대부분이 몰려 있는 중요 지역이라는 점, 상경이 군사적으로 당이나 변방 세력의 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었다는 점 외에 큰 이점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다(한규철 2010: 160~164)는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북대고분군을 위시한 중경 일대는 발해 전기 문왕을 정점으로 하는 왕권의 우월성과 국력의 과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결국 8세기 중엽경을 전후하여 중경 일대에 유적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문왕의 정치적 의도가 중경 일대에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후하다. 문왕 집권기 활발한 대당관계를 통한 발해 내부의 체제정비(김종복 2009: 150) 속에서 외래문물의 수용과 접촉이 빈번했던 중경 일대의 중앙 관인들은 발해 전기 왕실의 정통성을 표출하는 공간배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북대고분군을 조성하고, 그곳에서 누세대에 거쳐 고분군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단위 고분에 지속적으로 복수의 피장자가 추가장되는 점, 88-M9호 출토 대장식구의 연대가 8세기 중엽 이후보다 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 환치하면 구체적인 하한을 특정하는 데 한계는 있으나, 적어도 8세기 후반 이후까지도 북대고분군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를 상경에 두고 있음에도 대야발계의 선왕 대인수 즉위 이전까지 대조영계 왕실 구성원들은 사망 이후 굳이 용두산고분군에 매장되었음(강진원 2021: 518~523)을 유념한다면 북대고분군 역시 상경 도읍기에도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중경현덕부의 首州인 顯州의 소재지가 서고성이며, 발해 말기까지 현주가 현덕부의 소재지(송기호 1995: 90)였음을 재차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왕대 후기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府州縣制를 시행하는데, 府의 장관을 都督, 州의 장관을 刺史라 하여 지방관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송기호 2011:

116~117).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북대고분군 조성 집단은 동경과 상경 천도 이후에도 15부 62주의 한 곳인 중경현덕부의 현주자사 예하 재지 지방 관인으로서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VII. 맷음말

吉林省 和龍市 八家子鎮에 위치한 북대고분군은 일제강점기 아래로 비교적 조사가 충실이 진행된 밸해고분군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개발 등의 연유로 원상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밸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정밀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편적으로 보고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북대고분군의 문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북대고분군에 대한 연구는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고분의 구조 및 유형분류, 다인장에 대한 관심 등에 집중되었다. 이는 현재에도 북대고분군을 이해하는데 큰 지침이 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밸해고분 연구가 심화되는 와중에 이른바 다인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 외래유물의 출토 사례 등을 통해 북대고분군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북대고분군은 횡혈(구)식의 석실과 석곽이 주 묘제이면서 일부 위담봉토분구가 존재하는 점, 목관을 사용하거나 직장의 형태로 피장자가 안치되는 점 등을 재차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이른바 다인장이라는 요소가 실은 추가장의 현상이며, 피장자의 매장방식은 세 유형으로 구분됨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왕에 주목되지 않았던 중국도자와 동경, 당식 대장식구 등의 외래유물을 통해 중심연대가 8세기 전-중엽경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북대고분군의 입지와 주변 유적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고분군 조성 주체는 서고성을 위시한 중경현덕부와 밀접하게 연관된 관인의 묘역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밸해고분에 대한 관심은 유적 조사자료의 집성과 고분군의 분포, 고분의 구조, 매장프로세스의 검토, 피장자의 성격 등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팔목 할 만한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다만 거시적 관점에서 밸해고분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개별 고분군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단위 지역 내 고분군의 성격 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서두에 언급하였듯 정밀보고서가 빌간된 육정산고분군과 흥준여장 고분군을 제외하면 사실상 여타 개별 고분군에 대한 정치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맹점이 상존한다. 이상의 북대고분군 고찰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자료의 한계상 논리적 비약과 해석의 한계가 따름은 자명하다. 이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유관 연구를 보완, 진전함을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투고일 2023. 8. 31 | 심사완료일 2023. 9. 27 | 게재확정일 2023. 10. 10

참고문헌

- 강승규, 2019, 「창녕지역 횡구식 석곽의 축조 방법과 출현 배경」, 『한국고고학보』113, 한국고고학회.
- 강진원, 2021, 「발해 선왕(宣王) 이전 시기에 대한 시론: 순목황후묘지명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송기호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진인진.
- 강현숙 외, 2021, 『발해 고고학』, 진인진.
- 고성욱, 2018, 「발해 육정산고분군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고고미술사 전공 석사학위논문.
- 구난희, 2019, 「渤海의 古墳 外廓 造營物에 대한 研究」, 『한국고대사탐구』3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권오영, 2021, 「영안 홍준어장 발해 고분군의 매장 프로세스」,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송기호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진인진.
- 김종복, 2009, 『발해 정치외교사』, 일지사.
- 김진광, 2008, 「石室墓 造營을 통해 본渤海의 北方 經營」, 『高句麗渤海研究』30, 高句麗渤海學會.
- _____, 2012, 「홍준어장고분군의 사회적 지위 및 성격」, 『高句麗渤海研究』42, 高句麗渤海學會.
- _____, 2018, 「발해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M14 고분의 위상과 그 주인공에 대한 시론적 고찰」, 『先史와 古代』56, 韓國古代學會.
- _____, 2020, 「비교문화학적 관점에서의 발해 다인장 연구」, 『민족문화논총』7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하늘, 2020, 「발해 고분을 통해 본 복속지 지배방식」, 『高句麗渤海研究』68, 高句麗渤海學會.
- 박규진, 2011, 「발해 석실분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연구」, 『高句麗渤海研究』39, 高句麗渤海學會.
- 山本孝文, 2006,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研究』, 서경.
- 송기호, 1984, 「발해의 「多人葬」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1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_____, 1995,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 _____, 2010,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高句麗渤海研究』38, 高句麗渤海學會.
- _____, 2011,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엄장록·박룡연, 1993, 「북대발해무덤연구」, 『발해사연구』2, 中國朝鮮民族學術叢書 1, 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석배, 2007, 「체르나찌노5 발해고분군의 고분유형과 출토유물」, 『高句麗渤海研究』26, 高句麗渤海學會.
- 정원철, 2012, 「흑룡강성 해림시 산자자발해무덤」, 『高句麗渤海研究』42, 高句麗渤海學會.
- 崔正凡, 2019, 「渤海 王陵比定 試論」, 『한국고고학보』113,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1, 「하남둔고성(河南屯古城)의 재인식(再認識)-평지성(平地城)에서 능원(陵園)으로-」, 『동북아역사논총』72,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2a, 「東亞細亞 唐式 帶裝飾具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 _____, 2022b, 「渤海 年代決定資料와 歷年代」, 『한국상고사학보』제118호, 한국상고사학회.
- 한규철, 2010, 「발해 '중경'의 의미」, 『高句麗渤海研究』37, 高句麗渤海學會.
- 山西省考古研究所·陶正剛, 1981, 「山西平魯出土一批唐代金鉄」, 『文物』4期.
-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56, 「西安王家墳村第90號唐墓清理簡報」, 『文物參考資料』8期.
- 延邊博物館·和龍縣文物管理所, 1994, 「吉林省和龍縣北大渤海墓葬」, 『文物』1期.
-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和龍縣文化館, 1982, 「和龍北大渤海墓葬清理簡報」, 『東北考古與歷史』1期.
- 長治市博物館, 1989, 「山西長治市唐代馮廓墓」, 『文物』6期.
- 鄭永振·嚴長錄, 2000, 「和龍北大渤海墓葬研究」, 『渤海墓葬研究』, 吉林人民出版社.
- 朝陽地區博物館, 1973, 「遼寧朝陽唐韓貞墓」, 『考古』6期.
-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60, 「鄭州上街區唐墓發掘簡報」, 『考古』1期.
- 齋藤優, 1978, 『半拉城と他の史蹟』, 半拉城史刊行會.

A look into of Beida Ancient Tombs Balhae in Helong City, Jilin Province

Choi, Jung-Bum(Lecturer, Department of History, Keimyung University)

The Beida Ancient Tombs, situated in Baijazi, Helong, Jilin Province, is on the northern bank of the Hailan River, approximately 5 km southwest of Xigucheng. The tombs primarily exhibit a lateral crypt (vaulted) burial style with stone chambers and enclosures. However, some instances of stone-walled earthen mounds have been identified.

The interred individuals were either buried in wooden coffins or directly into a platform. While there is evidence of structures for placing a coffin, commonly, the natural ground surface was utilized without alteration. Meanwhile, within individual tombs, additional burials took place over a long period. It is noteworthy that individuals were laid to rest in different ways. While artifact excavation was not abundant due to simple funerals, the central chronological period has been ascertained to span from the pre-8th century to the mid of that century through cross-dating methods involving Chinese ceramics, bronze mirrors, and Tang-style metal belts.

The Beida Ancient Tombs are predominantly stone-built and the prevalence of excavated foreign artifacts is the highest among the Balhae tombs. In particular, given its symmetrical alignment with the Longtoushan graveyard, particularly centered around Xigucheng, the construction of the Beida Ancient Tombs was influenced by the funerary grounds of officials closely connected to the central capital of Balhae Jungkyung hyundeokbu.

Key words : Balhae, Beida Ancient Tombs, additional buried, Jungkyung hyundeokbu, Government officials.